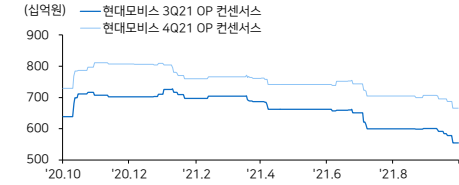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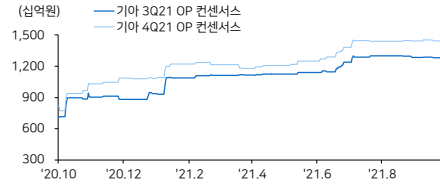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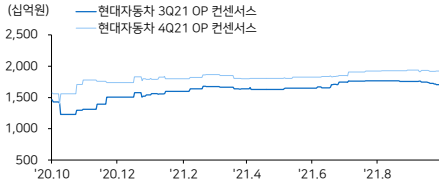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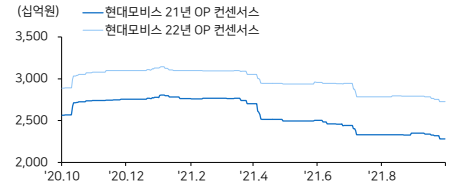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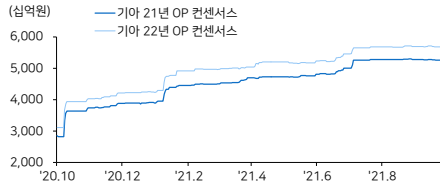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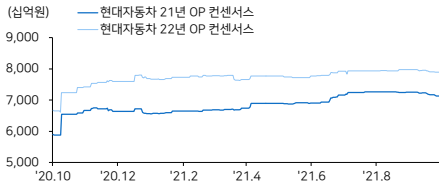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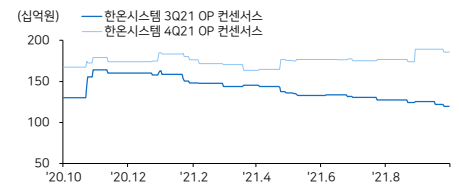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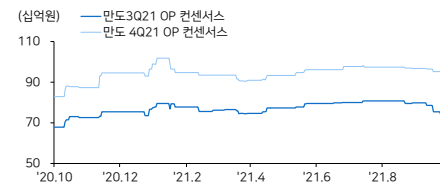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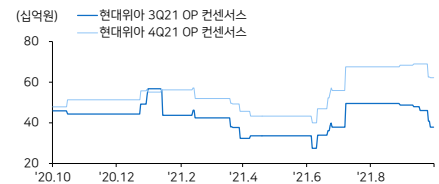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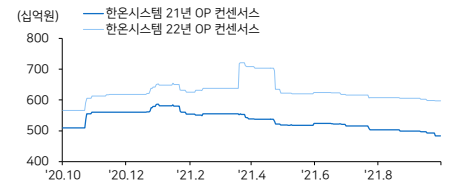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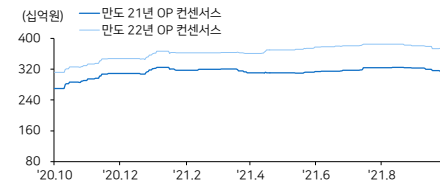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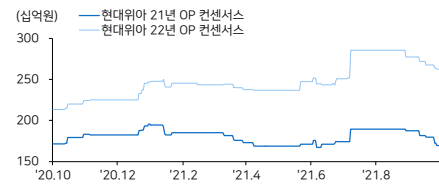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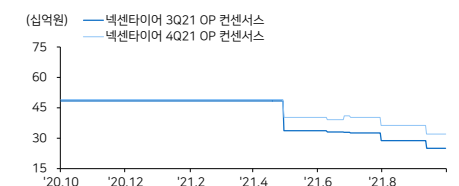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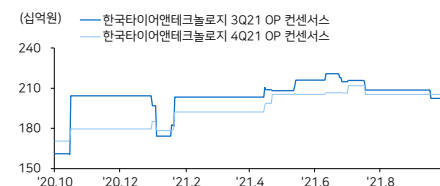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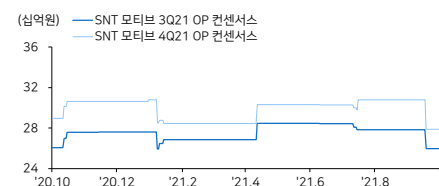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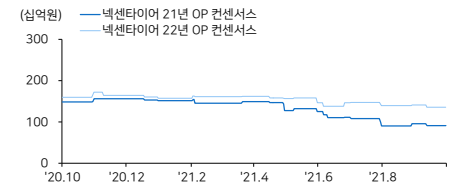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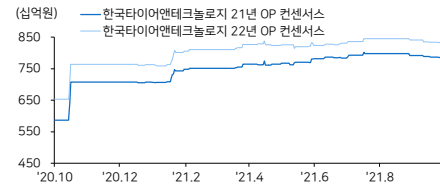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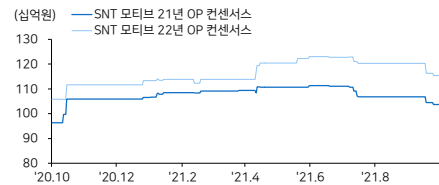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獨·英서 질주 (매일경제)

올해 1~9월 현대차·기아 차량의 유럽 내 판매량은 총 77만1,145대로 yoy +24.4% 증가함. 특히 유럽 국가 중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리는 독일과 영국 내 실적 성장률이 평균을 크게 상회. 특히 아이오닉5와 니로EV의 판매가 주목됨.
<https://bit.ly/3B1JSDv>

현대차 도심화공모빌리티 조직, 용산 사옥으로 집결 (조선비즈)

신재원 사장이 이끄는 현대차 UAM 사업부는 조만간 원호로 사옥에 입주할 예정. 앞서 현대차는 '26년부터 물류 현장에 도심 항공 실증을 시도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물량을 삼성SDI가 떠맡 것으로 예상됨. 투자와 합작 공장 규모는 미정.
<https://bit.ly/2XqgDWV>

삼성SDI,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동맹...美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 (서울경제)

삼성SDI는 최근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 지난 18일 LG에너지솔루션과 40GWh 규모 배터리 공장 설립을 발표했던 데 이어 삼성SDI가 떠맡 것으로 예상됨. 투자와 합작 공장 규모는 미정.
<https://bit.ly/3AWPKy2>

무인 로보택시 1.6km에 3만원...이게 현실화될까? (매일경제)

LA에서 열린 밀런글로벌퍼먼런스에서는 전기차, 메타버스 등과 같은 기술 예측 세션이 개최됨. 브렉 워턴 아크인베스트먼트 리서치센터장은 10일을 달리는 데 로보택시 비용이 25달러가 된다면 차량 구매보다 로보택시 이용이 더 저렴하다고 언급함.
<https://bit.ly/3A59keF>

전기차 미래시장 인니 찾는 정의선..조코위 대통령도 만난다 (머니투데이)

정의선 회장이 다음주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 조코위 대통령과 만나 전기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니 공략을 계획.
<https://bit.ly/30ICXTu>

현대위아, '하늘 나는 자동차' 핵심부품 첫 공개... 'ADEX 2021' 참가 (동아일보)

ADEX 2021에서 현대위아는 UAM에 적용할 수 있는 지상주행장치 'E-택싱(Taxing)'을 최초로 공개함. 전기모터를 이용한 방식으로 별도 견인장치 없이 UAM이 지상에서 주행이 가능하고 소음이 거의 없어 도심 환경에 적합한 기술.
<https://bit.ly/3BXPuAd>

마그네슘값 3배 폭등...후집계 또 '브레이크' (한국경제)

알루미늄 합금 생산을 위한 중국의 마그네슘 재원수 가동률이 낮아지며 향후 공급차질 이슈가 제기됨. 8월초 2만 원/인/t에 거래되던 마그네슘 가격은 최근 4만 8,000원/인/t 수준으로 상승함. 이에 알루미늄도 생산자질 영향을 받음.
<https://bit.ly/3G47dbG>

중 사오미 '2024년부터 전기차 대량 생산' (ZDNet Korea)

샤오미가 2024년부터 전기차 양산을 시작한다고 공언함. 샤오미는 지난 3월 3월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를 EV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중국 기업들의 전기차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https://bit.ly/3ji0Qa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